

타운뉴스 종교면은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기관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귀 기관에서 홍보하고 싶은 행사나 기사거리가 있으면 이메일 (info@townnewsusa.com) 또는 전화 (562-404-0027) 로 알려주세요.

종교



인연 돌보는 자비심이 불국토

장애인 장학생 모집 남가주밀알선교단

남가주밀알선교단(단장 이종희 목사)이 2023년도 밀알장애인자학복지기금 장학생을 모집한다.

선발 부문과 대상은 ▶밀알장학생(대학 또는 대학원에 풀타임으로 재학 중인 장애인) ▶꿈나무 장학생(사랑의 교실 참가자 또는 배움의 기회와 학업의 격려가 필요한 장애인) ▶근로복지생(미주 각 지역 밀알선교단에서 봉사하는 장애인)이다.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밀알장학생과 근로복지생은 1인당 3천600달러(매달 300달러씩 지급)의 장학금이 지급되며, 꿈나무장학생은 1인당 1천 달러(일시 지급)의 장학금을 수여한다.

제출 서류는 ▶밀알장학생에 지원하는 경우 신청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신앙간증문, 수입증명서, 추천서등이며 ▶꿈나무장학생은 신청서, 재학증명서, 수입증명서, 신앙간증문, 추천서 ▶근로복지생은 신청서, 신앙간증문, 수입증명서, 추천서등이다.

신청 기한은 오는 11월 30일이며 서류는 우편 (14545 Valley View Ave, Suite S, Santa Fe Springs, CA, 90670, 마감일 소인 찍힌 것 유효) 또는 이메일(admin@milalca.org)로 접수할 수 있다.

장학생 선발 결과는 2022년 12월 30일(금) 개별 통보한다.

신청서 다운로드 등 더 자세한 내용은 남가주 밀알선교단 홈페이지 (www.milalca.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세 추수감사예배 남가주연세동문 목회자회

연세대학교 남가주 총동문회(고혜흥 회장)와 남가주 연세동문 목회자회(회장 이영선 목사)가 공동으로 11월 6일(일) 오후 4시, 부에나파크교회(7037 Orangethorpe Ave., Buena Park, CA 90621)에서 '2022 연세추수감사예배'를 드린다.

이날 예배에서는 김영길 목사(감사한인교회 원로)가 설교하며, 남가주연세파이어, 연목회 사모 합창단, 연세대 남가주 총동문회, 연목회 회원 가정, 연음회(연세대학교 남가주 음대 동문회)가 감사찬양을 연주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참석자 전원에게 저녁 식사를 제공한다.

문의: (714) 486-7282

유수와도 같은 세월의 길목 담벼락에 서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생이 도대체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어차피 사는 세상이라면 제대로 살아보자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어차피 사는 세상 잘 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인연을 잘 가꾸자.

연예인이나 정치인 중에서도 불자라고 하면 훨씬 더 친근감이 있고 안볼 것도 더 보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人之常情)입니다. 많은 인연의 그물을 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더욱 그럴 것입니다. 오늘같이 법회가 있는 날이면 절에 나와서 나와 인연 있는 이웃들도 챙기게 되고 가족의 건강이나 소원도 챙기게 되고 가정의 평화도 발원합니다. 그 마음이 간절하면 할수록 부처님 가피가 반드시 상응할 것입니다.

살아있거나 죽었거나 우리가 인연 닿은, 그리고 인연 짓고 있는 사람들을 잘 챙기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복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인연 복입니다. 인연의 복은 가꾸기 나름입니다. 거기서 수확되는 것에 따라 인연되는 사람들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나와 이생에서 여러 인연으로 만난 이들에게 정성을 다하고, 그들의 행복을 발원하는 것은 나 스스로 성장하고 행복해지는 첫 번째 길입니다.

두 번째는 어려운 사람도 돌보며 살자는 것입니다. '어렵다'는 것을 불교에서는 네 가지 고통(四苦)으로 나누는데 사고(四苦) 가운데 으뜸 즉 생로병사(生老病死)의 으뜸은 생(生)입니다. 태어났기 때문에 온갖 고통을 겪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실감나는 고통은 병고입니다. 아프면 모든 것이 귀찮아집니다. 어떻게 하면 좀 아프지 않을까에 대해서 많은 인간이 고민하고 연구하지만 사실 해결방법이 잘 없습니다. 부처님도 "고통에 처한 사람, 특히 환자를 잘 돌보는 것은 보살행이자 부처님을 돌보는 일과 같다." 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연 닿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다 보면 자연히 어려운 사람도 돌고 사는 너그러움과 자비심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것은 불국토 건설의 기본 바탕이 되는 마음입니다.

세 번째 불국토 건설에 동참을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불국토가 건설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불교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강변의 돌덩어리가 되느니 차라리 쇠풍 위의 말뚝구리가 되는 것이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숨 붙어서 돌아다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런데 불교가 마치 박제나 화석인 것처럼 가만히 있는 것이 능사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불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방향을 못 찾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중국 청도에 법당을 개원한다는 소식을 발표했더니 그곳에서 몇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영남불교대학 신도들의 원력으로 청도 신도들의 소원을 들어주어 감사합니다. 현재 청도에는 한국인이 10만 명 정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열다섯 곳이나 되지만 절다운 절은 한 곳도 없어서 신도의 아파트에서 매주 일요일 법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중국 당국의 통제 속에 미약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중략) 마음 놓고 절할 수 있는 기도 도량이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이곳의 불자들은 아주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국토 건설에 한 일원으로 동참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좋은 일이고 자랑스러운 일인가 하는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법당이 하나 개원할 때마다 한 부처님이 출세하시고, 그 일대 모든 사람들에게 불심이 싹튼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연을 잘 가꾸고, 어려운 사람 돌보고, 불국토 건설에 동참하는 일은 각각 따로 행해지는 일이 아닙니다. 내 주변을 잘 돌보고 그네들을 돕다 보면 자연히 자비심이 생기고, 그 마음에서 힘이 생겨 결국 불국토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자리를 잘 관찰해보시고, 무엇이 진정한 삶인지를 가슴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숨 붙어서 돌아다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우학 스님-



사장님, 칭내세요! 대박나게 도와 드릴게요.

대박사인

배너, 메뉴보드, 전단, 명함 등
각종 실내외 사인부터
광고, 디자인까지-

Tel.(323)641-7907

1890 W Washington Blvd
Los Angeles, CA 90007